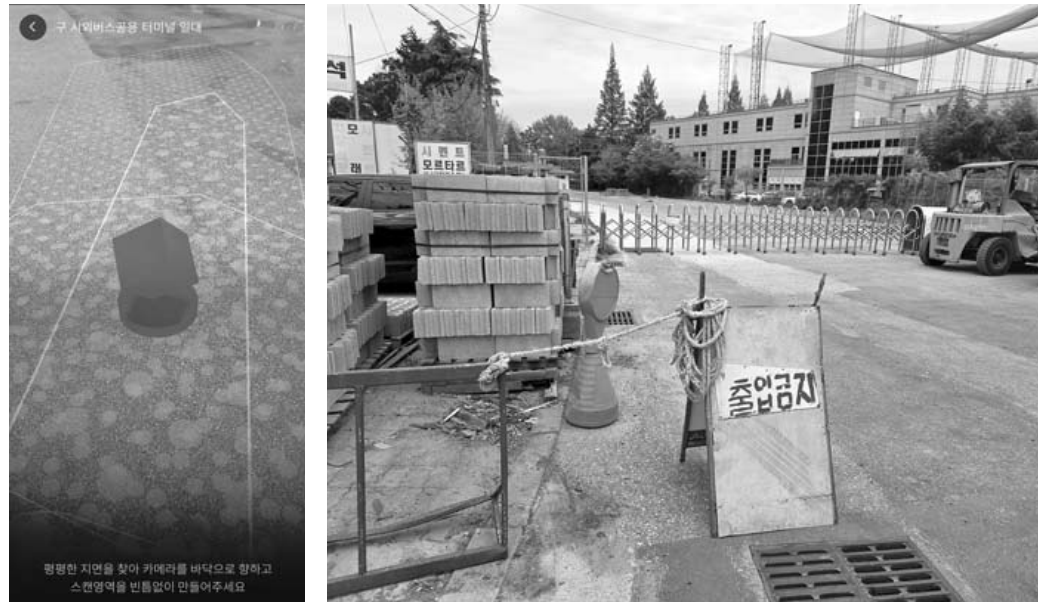


“생생한 오월 체험” 5·18 스마트투어 앱 AR ‘유명무실’

市, 2022년 위탁 개발...이듬해 운영
6개 코스·사적지 30곳 정보 등 제공
12곳 증강현실 체험 불가 11곳 ‘먹통’
‘출입 불가’ 옛 광주교도소 안내 혼선



광주시가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AR과 3D 건물 복원 기술로 당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투어 앱이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12곳에서 앱을 사용해본 결과, 11곳에서 스캔 영역 표시와 초록색 입방체 형태의 기준점이 나타나고(왼쪽) 옛 광주교도소는 철제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현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시가 ‘생생한 오월 체험’을 내세우며 운영 중인 5·18 스마트투어 앱이 정작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스마트투어 앱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요 관련 사적지를 둘러보며 AR(증강현실)과 3D 건물 복원 기술로 당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서비스다. (위위치가 국비) 2억8천여만원을 들여 2022년 개발을 완료해 2023년부터 운영에 나섰다.

이 앱은 6개 코스(햇불·희생·광장·열정·영혼·한강 작가 소년의 길)를 따라 걷는 동안 5·18 사적지 30곳의 정보와 자동 해설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5·18 주요 사적지를 보

다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홍보 내용과 실제 체험 사

이의 간극이 컸다.

이날 햇불 코스 중 하나인 동구 대인동 ‘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 현장에 도착하자 앱에

도착 알림이 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안내 시설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주위를 한참 동안 살핀 끝에 광주은행 본점 화단 앞에 놓인 기념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앱을 실행해 AR 기능을 활성화하자 바닥을 인식하라는 안내 문구와 스캔 영역 표시, 초록색 입방체 형태의 기준점이 나타났다.

안내를 따라 바닥을 비쳐봤으나, 실제 AR 콘텐츠는 좀처럼 구현되지 않았다. 카메라 각도를 바꾸고 자리를 옮겨 주변을 비춰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후 동구 계획동의 ‘5·18 최초발포지’로 이동해 다시 AR 기능을 활성화했지만, 이곳에서도 체험 화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햇불 코스 7곳 ▲희생 코스 1곳 ▲광장 코스 2곳 ▲열정 코스 1곳 ▲영혼 코스 1곳 등 AR을 체험할 수 있다는 12곳의 사적지에서 이를 사용해봤지만, 햇불 코스 중 하나인 금남로를 제외하고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현된 금남로에서도 처음에는 AR이 실행됐지만 곧 이미지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이상 현상

이 나타났다.

이에 다시 앱을 구동해봤지만 스캔 영역 표시와 초록색 입방체 형태만 나타날 뿐 AR은 더 이상 구현되지 않았다.

또한 영혼 코스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의 경우 철제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패 반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을 따라 투어를 진행해본 윤모(30대)씨는 “구동도 안 되고, 막상 가보려 해도 접근이 어려운 앱을 만들어 놓고 무슨 체험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보다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해 본 체험이었지만,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AR 콘텐츠는 GPS로 해당 위치를 인식해 구현되는 방식인데 일부 지점에서 위치 인식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며 “개발사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옛 광주교도소에 대해서는 “시 소유가 아닌 부지여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 상황을 행정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불법게임물 유통·운영 ‘100억대 수익’ 일당 검찰행

전남경찰, 3명 송치...2명은 구속

전국 성인PC방 500여곳 상대

포인트 충전·환전 등 서버 관리

전국 성인PC방 500여곳을 상대로 불법 게임물을 유통 운영하며 5년간 100억대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따르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40대)씨와 유통책 B(30대)씨 등 2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를 도와 관리 사이트 운영에 함께한 조직원 C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 송치 대기 피고인 중 2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성인PC방 500여곳을 상대로 불법 게임물을 설치 관리하며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은 현금을 입금하면 제공되는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범행 기간 이들이 환전한 금액은 339억원, 범죄 수익은 152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관내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하던 중 A씨 등의 조직적 범행 정황을 포착했고 추적이 나서 경기도 일대 거점 3곳에서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후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추정 보전에 나섰고, 중간 유통책과 성인 PC방 업주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는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완도 냉동창고 화재 작업 지시자 구속

소방 대원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당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예폭시작업을 지시한 사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1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B(30대)씨가 예폭시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과 관련해 작업 지시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완도=윤보현 기자

초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경찰, 수사

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 교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학교 측이 낸 고발장에는 A씨가 또 다른 교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

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 형태의 카메라가 특정 교직원을 향해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고,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인재영 기자



여름꽃 식재 28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매리골드, 백일홍 등 여름꽃을 식재하고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4만본의 여름꽃을 관내 가로화단에 심을 계획이다. /조영권 기자

광주 동부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탁 등 혐의로 동부서 모 수사부서 팀장 A씨와 팀원 2명 등 총 3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결재를 올려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남부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허위 근무 시간에 대한 주장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형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